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선생님 명설교 정리요약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씀이 먼저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후에 사랑이고 복이고 모든 것이 결합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빗나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지게 되고 비원리적인 사랑이라서 사탄도 비웃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의 시대의 말씀을 외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혹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래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입니다.

“주가 오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누구를 맞으려고 하는데 맞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크고 뜨거운데 실상 어떻게 할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홀로 깨닫고 있다가 너무도 크고, 너무나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명령하고, 내 몸뚱이를 하나님의 손발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여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면 못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시켜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의 조화입니다.

그것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 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과 영감에서 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학을 맡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 주고, 신론(神論)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증이 없습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변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고, 주님이 보낸 자는 주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자가 역사를 하면 그는 일순간에 사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착오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 하시는 자를 두렵게 볼 줄을 몰랐습니다.

성현들이나 크나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주(主)보기 전에는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성경에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주의 마음을 받아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번개 치듯 번뜩번뜩 순간 순간 알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광야에는 이지가지로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없는 데서 예비 한번 해 봐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게 만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참으로 크나큰 깊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이 주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만 주를 만나고 주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면 와도 잡을 수 있는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주’도 기다리고 원해야 ‘주’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도 자기가 믿고 좋아해야 나타나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계시도 받으려고 자꾸 기도하고 계시를 받으려고 해야 계시가 오지, 계시 받으려고 안 하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지나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맞이하려면 하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늘이 나타납니다. “나를 만나러 온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구름같이 온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막 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막 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일하면 그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보낸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노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닿으면서 깨달음이 닿을 때, 나를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는 말은, 아름답게 하라! 좋게 하라! 그대로 편안하게 해 줘라! 오는데 편안하게 해 주도록 하라. 편안 사람에게는 편하게 마음이 와 닿게 되고, 손길이 가게 되지만 편안치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가지고 먼저 두려움과 의식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복음 앞에 오도록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강제성을 띠든가, 너무나도 환각작용에 해당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든가, 종교에 빠진 상태에서 말을 한다든가, 말을 안 들으면 울그락 불그락 하고 막 분을 내면서 할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것은 자갈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꼭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 인류가 이곳을 찾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 얘기하며, 자연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섬겨 즐겁게 해 드리라고 이곳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차시설도 1,500대 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싸움질 안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차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차를 가졌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오늘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해 주는 것이, -> 바로 하늘을 믿고 말씀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역자들, 지도자들, 전국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따르는 무리를 평탄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불안케 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으르릉 거리는 호랑이, 사자의 입을 찢는 다윗의 정신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지도자들은 그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으러 오는 이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을 잡으러 오는 흑암의 세계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탄을 꾸짖어서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깨달음을 받는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평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전할 때 첩경이 평탄한 그런 언어를 써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산만 뭉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탄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탄한 행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낮아지는 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산(山)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험한 마음과 험상한 인상, 험한 정신들이 평안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광야에서 예비하려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길이기 때문에.

이외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집에 가서 성서를 찾아보십시오. 대학교 공부하듯 열심히 성서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남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불리 가르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해 주고 잘해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대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첩경을 평탄케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험한 길과 험산과 죽음의 계곡과 아픔의 계곡과 병들의 계곡을 평탄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평탄하게 해 주었나를 생각할 때 오늘부터 청산하면서 남은 바 몇있는 역사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감동되었을 때 해야 됩니다. 감동되었을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첩경을 평탄케 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알겠습니까. 여기 월명동도 이만큼 해서 첩경을 평탄케 해 주었습니다. 같이 했지만. 이제 이런 평탄케 한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써먹고, 또 말씀으로 평탄케 그만큼 했으니 이제는 잊어버리자 말고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성서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잘 하고,

저것도 잘 하고, 걱정 끼치지 말아야 되고, 조심히 살아야 되고, 아주 근신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이게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첩경을 평탄케 해 봐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기 도 >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맞으려면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 주면 내가 가겠노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내 말대로 주관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와 같이 모으고 나와 같이 헤치지 않는 자는 역시 첩경을 평탄케 못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불, 바로 심령의 부활, 사건의 부활, 환경의 부활, 정신적 부활을, 바로 마음을 평탄케 근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 때는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차, 불안한 배, 불안한 사람이면 따라갈 수 없는 입장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시대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불안치 않게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안한 생각을 하고, 늘 불안한 정신과 사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근본으로 깨닫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역사를 펼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을 다 떨쳐 버리고 정상적인 진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짚이 나게 해서 거기에 결실함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강림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위대한 시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축복하심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뭘 어떻게 할 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정치나 경제, 모두 첩경을 평탄케 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경제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것은 첩경이 평탄치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역시 걱정되는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첩경을 평탄케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권자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권자는 5년 하고 끝나고 가지만, 우리는 남아서 계속적으로 국가 앞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위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차비는 올라가고, 불안한 경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도 첩경을 평탄케 하지 못해서 민다가 다 빠져나가버리고, 교회기
번창하기보다 계속 줄어들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며 무슨 개혁일 일어나든지
해야지 큰일 났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사람이 가물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은
그 첩경을 평탄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말씀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불 심판을 한다, 공중에서 나타난다.’ 하면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맞은 역사가 6000년 동안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와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진 위에
집을 지을 때 편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감사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성자성신, 삼위의 큰 능력과 권능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전국 온 지구촌 섬리 나라에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